

The Well-Watered Garden
Vol.107 | 20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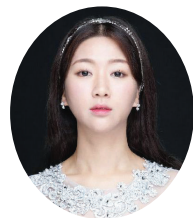
물댄동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 107:1



여정



최 강 미 성도

1부

고향의 봄

반달

꽃피는 날

바람이 머무는 날

kazabue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2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정

믿음의 고백, 은혜, 다같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축도

시 이야기

‘여정’이라는 시는 찬양콘서트에서 소개된 음악 프로그램 1, 2부 순서지를 편집한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시로 올리나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대구제일교회 기독교 역사관에서 최강미 부부가 개최한 찬양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교회 벽면에 찬양 노랫말이 투사되고 음악이 곁들여지면서 ‘이것이 참으로 시로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이 ‘여정’이라는 시·음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정의 평안함이 향기롭게 펼쳐집니다. (이주하 편집위원)

최 강 미

대구제일교회 기독교 역사관에서 더해본 앙상블 두 번째 찬양콘서트를 연 음악가이다. 그는 찬양콘서트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고백한다.

통권 제107호
The Well-Watered Garden

물댄동산

제107호 표지 일러스트
안주현 집사



권두언	02	신경희 목사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순 소개	04	김진술 성도	미모순 III 'Yes'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새가족 소개	06	홍보출판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새가족 글	07	박창환 성도	어머니의 기도
교회학교 여름행사	08	신유미 집사	영아부-“구원 구원 라파키즈!”
	09	김현진 전도사	유아부-“구원 구원 라파키즈!”
	10	송인숙B 권사	유치부-9191 하나님의 라파키즈!
	11	윤다운 전도사	초등1부-SOS! 라파구조대
	12	최시온 교사	초등2부-하나님께 시선 고정!
	13	이주현 권사	초등3부-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14	박예슬 학생	중등부-기도하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
	15	신현섭 학생	고등부-“창·에·스·전”을 통독했어요...
	17	양진영 청년	청년1부-주여,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소서~
	19	최정훈 청년	청년2부-10년의 공백 후 다시 만난 수련회
	21	김상민 집사	청년3부-“돈독”해 지자구요~
학원선교특강	23	이성희B 집사	『성경적 성(性)가치관』
국내선교부	26	김태호 은퇴안수집사	교회 탐방객을 위한 가이드 봉사
사회복지부	28	주기성 장로	사회복지부를 소개합니다.
퇴임사	30	박중성 목사	많은 사랑 받고 떠납니다...
청년세대	32	홍보출판부	승재스쿨
해외선교사 소식	36	손명락, 박원향 선교사	대만 선교 20주년을 돌아보며...
단기선교 보고	38	이금환 안수집사	미안마 긴급구호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40	이지원 청년	주가 일하시네!
5분독서	43	홍보출판부	
고것이 알고싶다	47	홍보출판부	기독교 강요
교계 신문 함께읽기	50	홍보출판부	경조부 소개 [이재환 장로]
특별 칼럼	52	홍보출판부	한국장로신문 [사설] / 한국기독교공보 [논단]
국내선교부 특수선교팀	54	홍보출판부	교회 이탈한 3040세대 절반 이상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미소사진	56	김위규 장로	담장 안에서 온 편지-조영식
성도의 글	58	고등부	
교회광고	59	정경자 집사	절기
성도광고	60	홍보출판부	순 공동체로 초대 / 문화교실 수강신청 안내
열린소리	62	홍보출판부	상부상조 相扶相助 & 유유상종 類類相從
쉬어가는 페이지	65	홍보출판부	열린소리함 쪽지
	66	홍보출판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임시당회장
신 경 희 목사
(동지교회 담임목사)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동지교회를 섬기는 신경희목사입니다. 32년 전 대구제일교회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 지금은 임시당회장이 되어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대구제일교회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중입니다.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와 경북의 모교회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청빙위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시당회장인 저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3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말 선한 목회자가 오시길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격과 영성과 말씀에 탁월한 목회자를 위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기대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목회자가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실 좋은 목회자를 예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체 기도문

청빙을 준비하는 제일의 공동체를 위하여

- 새로운 세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담임목사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소서.

새로 오실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 주소서.
- 건강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섬길 목사님을 보내 주소서.
-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 주소서.
-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님을 보내 주소서.
-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의 종을 보내 주소서.
- 말씀과 기도, 예배와 목양 및 교회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목사님을 보내 주소서.

청빙 절차를 위하여

-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 사단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오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되는 청빙이 되게 하소서.
- 사람의 계획을 넘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 청빙 절차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하여

-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청빙위원회 위에 성령의 이끄심을 허락해 주소서.
- 청빙위원 7명에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 오직 옫드려 기도함으로 청빙의 모든 과정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 사람들의 소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순 이야기 **미모순Ⅲ**

‘Yes’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김진솔 성도(순장)

안녕하세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Yes’하다 보니, 2024년 하반기부터 순장으로 섬기게 된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로 향했던 제가 예배와 단절된 것은 2020년의 일입니다. 신앙이 없던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 역할을 감당하던 저는 감사하게도 남편과 함께 찬양대에 서는 기쁨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대면으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중단되었고, 마침, 임신하게 되어 온라인예배만 겨우 드리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믿어 온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믿은 것이 바보 같았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자,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을 판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괴로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 근무가 있어 출근하고 두 돌이 채 안된 딸과 단둘이



남아있는데, 오늘은 꼭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Yes'하며 순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음속으로 점찍어두었던 제일교회 영아부로 향했습니다. 2022년 7월 24일의 일입니다.

제가 꾸준히 아이와 함께 교회를 나가자 곧 남편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며 바나바로 이육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께서 아이와 저희 가정을 무척 예뻐하시며 잘 챙겨주시는 모습에 남편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세워지니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만나게 된 것이 '미모순'입니다. 당시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광경주 집사님의 거침없는 권면을 받고 열떨결에 'Yes'하고 보니 어느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나누는 끈끈한 순모임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에 사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순장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제안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기회라고 여겨 'Yes'하며 참여했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인 줄 알고 시작했던 교육을 알고 보니 '소그룹 인도자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순장으로 세워질 자격을 갖추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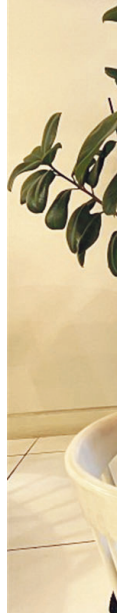
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분 순을 하게 되어 두 명의 순장이 세워지는데, 제가 그중 한 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이나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순장님께 묻곤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의 부족함에 한없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에도 'Yes'했습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 이시리라 믿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Yes'뒤에 돌아오는 은혜를 세어보면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게 손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순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리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 쓰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오늘의 순종이 감사로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며 외쳐봅니다.

“그때 순종하길 잘했어, YES!!!” | 문태동산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Welcome! New Family



조쌍임 _ 4교구 17구역



조요섭, 최미영 _ 1교구 25구역



손경미 _ 1교구 2구역



조남숙 _ 2교구 23구역



이수민 _ 3교구 12구역



이병무 _ 4교구 32구역



정신일 _ 4교구 15구역



강유주 _ 4교구 15구역



이다교 _ 3교구 18구역



오세미 _ 4교구 33구역



박창환 _ 2교구 16구역



이희숙 _ 2교구 35구역



장효익 _ 2교구 23구역



박은영 _ 3교구 24구역



이순년 _ 2교구 1구역



어머니의 기도



박창환 성도

제가 대구제일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교회에 발을 들이고나니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나서 이 글을 적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곤한 잠에 빠져있을 때 이마가 서늘하여 눈을 떠보니 어머니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왕복 십리 산길을 옛날 말로 납닥바리(여우)가 출몰한다는 산길을, 캄캄한 산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10도의 엄동설한이나 예외 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데요,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핼박과 욕설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중풍을 얻으셨고 1년 동안 어머니께서 모진 병수발 하시면서 마지막 임종 때에 부르시던 찬송이 늘 마음에 남아 지금도 그 찬송가 가사가 입에 맴돌아 눈물이 많이 납니다.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치시면서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

네. 가시면서 부르시던 찬송가가 아직도 귓전을 울리고 눈에 선합니다. 그러시던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신 지가 26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불순종한 불효자는 속칭 “가나안”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월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운전 중에 CBS 설교를 듣던 중 대구제일교회 박창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등록을 한다면 대구제일교회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너무 많은 시간 10년을 보낸 후 이제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고 많은 생각, 회한들이 이 여름밤에 끝도 없이 제 머리 속을 지나쳐갑니다.

대구제일교회에 등록한 후,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교회 같으면 어찌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놀랍고 경이로웠으며, 한주 한주의 새로운 말씀들이 늘 놀라웠습니다. 바나바이신 표동철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매주 교육해주신 강사님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10주간 일대일 교육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더욱더 순종하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물대동산



영아부 성경학교 참관소감문



신유미 집사
(영아부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 위로 엄마 신유미입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글을 쓰는 날이 오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 주일 영아부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환대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도 영아부는 소중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4개월, 23개월의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9191 라파키즈>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영아부 아빠들의 섬김의 수고 덕분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놀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전처럼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지금도 저희 가정에는 “구원 구원 라파 키즈”를 외치는 서로 덕분에 성경학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라파키즈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 | 문앤동산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보고서
“구원 구원 라파키즈!”



김현진 전도사
 (유아부 지도)

올여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는 뜨겁고 즐거웠어요. 하나, 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의 영상편지를 보았어요. 힘을 내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입술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반 친구들과 모여 앉아 선생님과 함께 성경공부도 했어요. 아하! 라파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구나! 아하!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배우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액자 만들기(미술), 미션 달리기(신체), 미니난타(음률) 활동을 해보았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유아부 아이들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

음을 치료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라파키즈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 문단동산





2024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9191
하나님의
라파키즈!



송인숙B 권사
(유치부 총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를 위해 라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앞 못 보는 사람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쳐주시고, 쓴 물을 단 물로 바꿔주시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라파키즈로서 아픈 친구를 찾아가 위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청년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연극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라파 구조대! 멋지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물총 놀이도 하고 부모님과의 사랑의 회개 편지 쓰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라파키즈로서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물단동산**





SOS!
라파구조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소감문



윤단은 전도사
(초등1부 지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이번 수련회 주제는 ‘SOS! 라파구조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아이들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 뜻을 세우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했는데, 아이들은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도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제게도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주제를 따라 치유하시는 라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자기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라파구조대로 **살아가다가** **낙심이 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씩씩하게 일어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성경학교 때까지 더욱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물대동산**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참관기

하나님께 시선 고정!



최시온 청년
(초등2부 교사)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께 시선 고정'이라는 주제의 LUU 위탁캠프로 진행되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참된 형통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3시간 연속으로 예배와 기도 집회가 진행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법도 한데,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는 아이들이 참 예뻐다. 특히 기도 시간에는 시키지 않아도 손을 뻗어 간절히 기도하고,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마음이 뭉클했다. 이러한 모습들은 캠프가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찬양 율동을 하지 않던 아이가 율동을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였다.

아이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기도와 찬양하는 방법,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서 좋았다고 고백한 아이도 있었다. 이번 캠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시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삶,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초등2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캠프 기간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 쑥쑥 자라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물댄동산





초등3부 여름성경학교 참관기

예수님과함께 살아가요!



이주현 권사
(초등3부 부장)

이번 초등 3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치킨 만들기 체험, 영화관람, 캠프파이어, 세족식, 애찬식 등 여러 일정을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했지만, 무엇보다 친구들과 교사들이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정말 기쁘게 예배드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도 상관하지 않고 예정된 예배 시간이 끝났음에도 쉽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찬양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초등3부 아이들의 모습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문득 어린 시절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인생의 고비를 지날 수 있길 기도하며,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신 목사님과 선생님, 여러 방법으로 마음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물대동산





중등부 하계수련회 참가소감문

기도하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



박예슬 학생
(중등부)

교회 하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먼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뒤에 ‘아멘’만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대충 기도한 적도 많았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온 뒤론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다. 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알게 되어서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법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이 바뀐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항상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도하는 법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기도할 것이다. | 물대동산





고등부 하계수련회 참가소감문

“창·에·스·전”을 통독했어요...



신현섭 학생
(고등부 학생회장)

샬롬! 많은 분들의 기도 아래 “I’m a christian-whenever, wherever, whatever I am.”이라는 주제로 예그리나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예그리나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기에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그때순’ 모임의 서유정, 박수진 집사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어려웠던 식사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놓아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려는 의지 하나로,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7월 19일(금)부터 21일(일)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오신 정원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길 원하는 고등부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이번 수련회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이었습니다. **늘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삶에서 감사에 무뎠던 저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달리 아침에는 큐티를 하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으며 다른 친구들과 인상 깊은 구절을 공유하였고, 이정이 고등부 목사께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읽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4회에 걸쳐 구약의 창세기 37~46장 (요셉), 에스더 1~10장, 스가랴 1~14장, 전도서 1~12장을 통으로 읽어갔습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이 특히 교회를 처음 나오며 성경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이 긴 시간에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려와 달리 많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로 똘똘 뭉쳐 성경읽기에 적극 참여하였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활동을 무사히 잘 마무리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무진 선생님이 준비하신 성경퀴즈는 말씀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헛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려 하심을 알 수 있었으며,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마주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서 스가랴를 읽으며 또한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예언서보단 역사서를 선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들을 모아놓은 예언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의 영광과 회개, 파멸과 심판 등으로 나누는 구절들과 내용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소중함을 찾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순 있으나 그것은 안개처럼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삶의 참 가치며, 그 모든 것은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학교와 일상에서의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구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떠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을 가지고 또 고등부 지체들과 교제할 수도 있던 시간이라 감사했습니다. 고등부의 구호, "I'm a christian-whenever, wherever, whatever I am."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다짐들을 위해 은혜로운 말씀과 설교들로 무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으로 끓어오른 맘이 잠깐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불길이 아닌 작고 잔잔하게라도 계속해서 피어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물뎀동산



청년부 수련회 참가감상문

주여,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소서~



양진영 청년
(청년1부 41기)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41기 청년 양진영입니다! 저는 이번 청년부 여름수련회에서 워십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워십팀으로 섬길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워십팀으로 섬기면서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지만, 저는 준비 과정을 통해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다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워십팀으로 활동하면서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는 말씀을 쫓아 먼저 워십팀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워십팀을 섬기기 전까지 육체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품었던 두려움을 기대로 바꿔주시고, 기대를 소망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워십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부목사님께서 저의 워십을 보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의 사랑이 이웃들에
게 전해질 수 있었음
에 감사합니다.

두째로 하나님께
서는 대구제일교회
품 공동체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도행전 19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
았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이 아닌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며 수련회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하계수련회 둘째 날
기도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
많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세
상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돈과 명예
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품 공동체
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예배와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아시아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
랑하시고, 대구 땅을 사랑하시고, 대구제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성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
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
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
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께 항
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
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을 사랑합니다. 하계수련회 이후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계수
련회 후기를 읽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3)

| 물댄동산



청년2부 여름수련회 참가 감상문

10년의 공백 후 다시 만난 수련회



최정훈 청년
(청년2부 36기)

제가 속한 청년2부는 청년 1부와 함께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땅을 밟대고 사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수련회 장소인 경북 영덕군 나라골보리말체험학교의 평화로움이었습니다. 푸른 풀밭, 청량한 하늘, 고즈넉한 기와 건물은 **저를 수련회에 온전히 집중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로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이유미 사모님의 강의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 분야인 연애와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윤지혜 사역자님께서 직접 만드신 찬양

을 듣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영덕 해변을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키고 이를 베푸는 활동을 한 것 같아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또한, 고래볼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활동을 통해 파도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저녁에는 찬양집회와 청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며 학업, 취업 준비, 사회생활로 지친 청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그저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중등부까지 수련회도 참석하고, 성가대에 소속하는 등 신앙 활동을 하였지만, 들려오는 말씀과 찬송은



어린 저에게 쉽사리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능 공부, 대학 진학, 취업 준비라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운이 좋게 취업하게 되었고, 이는 제 인생의 다음 목표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가기 위해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번 여름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궁금했던 모든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믿고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는 베푸는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련회를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임원분들, 설교뿐만 아니라 힘든 교통상황에서도 기꺼이 버스를 운전해 주신 청년부 서성준 목사님, 수련회 기간 먼저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신 조원분들과 같은 방 형제들 등,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베풀어주시는 모습과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제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물대동산





청년3부 여름수련회 참가보고서 “돈독” 해 지자구요~



김상민 집사
(청년3부 회장)

대한민국은 제79주년 광복절 행사로 바빴던 8월 15일, 청년3부는 더욱 뜨겁게 교회에 모여 여름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돈독”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 중에서 우스갯소리로 물질적인 풍요함인 ‘돈독’의 의미가 아닌가?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련회의 주제인 “돈독”의 의미는 1) 하나님 안에서 돈독해지기, 2) 회원들 간의 돈독해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시 50분부터 김규명 집사의 찬양 인도로 각자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에 문을 열고 집중하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만원을 가지고 수련회의 주제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미션들을 줬습니다. 모든 미션들을 수행하고 조별로 회장에게 미션 수행 사진들을 보낸 후, 조원들을 소개하고 조별로 미션들을 수행한 것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조는 회원들과 친해지는 미션을 수행하며 인생 네 컷 즉석 사진을 촬영한 조도 있었고, 친밀하고, 열정적으로 나눴던 조, 돈독의 의미로 수련회를 위해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는 권사님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비타 500을 구매하여 선물로 나눠드리는 조, 수련회의 주제와 조별 모임을 하러 가는 영상을 촬영하여 친밀감을 발표하는 조, 각자의 명찰과 회원들의 손을 포개는 모습을 촬영하여 회원들과 친밀함을 표현한 조. 조별로 다양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황천호 지도목사



권성욱 부장집사

조별 모임 발표가 끝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 메뉴는 ‘닭백숙’!! 아이들과 청년3부 회원들은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몸보신이 된 듯 더욱더 ~ 힘이 납니다.^^

점심시간 후 잠시 휴식을 가지고 오후의 일정은 회원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레크리에이션 시간. 서로 친밀해지는 게임을 통하여 회원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단합하며, 숨겨진 승부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후 ‘구약성경 맥락 잡기’로 황천호 목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청년3부 신앙모임으로는 성경 읽기, 신앙 서적 모임, 성경 쓰기 3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 성경 읽기 모임에서는 전체 성경을 일독하고 있는 회원들이 구약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쉽게 읽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 목사님은 구약성경 맥락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탁월한 강의를 통해 궁금했던 부분들이 흥해가 갈라지듯 시원한 사이다를 마셨을 때 답답한 가슴이 뻥뚫리듯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교회와 청년3부를 위한 기도 제목 등으로 기도회를 가진 후 청년3부 수련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련회 일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신 황천호 목사님, 권성욱 부장님, 청년3부 임원들, 바쁜 시간에도 헌신하며 참여해 준 청년3부 회원들, 특별히 모든 회원이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자녀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이정미 목사님, 박종성 목사님, 윤다운 전도사님, 김은지 전도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이정재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박충구 권사님, 송태순 권사님, 안선애 권사님, 오주란 권사님, 장성미 권사님, 황순옥 권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대등산



『성경적 성(性)가치관』 차별금지법과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성희B 집사
(학원선교 팀장)

지난 8월 24일(토)에 학원선교팀주관으로 김지연약사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원선교팀에서는 매년 성명여중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위해 생명존중·생명사랑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학원선교 강사들이 학생들을 두 달간 만나서 집단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는 성경적 성(性)가치관에 대해 듣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약사님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다니시는 분이래 학원선교 강사들만 듣기에 아쉬워 특강을 전교인이 듣도록 홍보하게 되었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약 150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참석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요즘 시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겪는 가운데 특히 교회의 진리와 반대되는 성(性)가치관이 여러 곳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논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니다. 이는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교회의 진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성(性)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둠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먼저는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과 성(性)가치관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 매체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진리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들은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해 올 때 분명하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중요한 정보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학원선교팀에서 마련한 커피 쿠폰을 이용하여 이스트힐에 모여 2차로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이번 특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김지연약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주셨고 다음 세대와 미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음에는 교회 차원으로 김지연 약사님을 초청하여 강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강이 성도님들께 시원함과 감동의 시간이었다



강사: 김지연 약사

는 얘기를 들었을 때 특강을 준비한 저희들도 기뻐했습니다. 김지연약사님도 가시면서 저희가 마련한 점심과 디저트를 기쁘게 받으셨고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 한 줄 소감문 |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묵상해 보게 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을 통하여 동성애가 왜 반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죄가 되는가를? 성경적 의과학적 관점에서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지연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연 장로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복음전파를 막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선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문희 장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보낼 때 역청을 많이 발라 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아기 모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청(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발라야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강사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준옥 장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힘겨운 현실을 볼 수 있었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이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양홍철 장로

저는 10여 년 전 김지연약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왠지 모를 마음 불편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오늘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나는 다른 의미로 강의를 했으나 이 단어의 의미나 성적지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난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성희 팀장

학원상담 특강에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도와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싸워주시고 기도로 잘 이끌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댄동산



교회 탐방객을 위한 가이드 봉사



김태호 은퇴안수집사
(고등부 교사)

2년여 전에 국내선교부에서 교회 순례자와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봉사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봉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계옥련 권사, 양홍철 장로, 정외순 집사와 함께 가이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가. 베어드, 아담스 목사의 교회 창립 이야기

나. 구제와 전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들과 병원 설립 이야기를 통해 서양 문물 도입과 민족개화가 시작되었음을 설명

1) 교육기관 : 계성학교, 신명 학교, 계명대학, 희도 학교(현 종로초등)

2) 병원 : 제중원(현 동산병원)

다. 우리 교회 출신 음악가 이야기(박태준, 현재명), 청라언덕과 가곡 동무 생각 유래

1) 31 만세운동

2) 31 만세운동(대구는 1919. 3. 8.)에 대구제일교회, 계성학교가 주체가 된 내용

3) 삼일운동로(路)의 유래

라. 선교사 사택 및 은혜의 정원 이야기

마. 최초의 사과나무, 젓소, 그리고 피아노 도입 이야기

바.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 및 고 이상근 목사 이야기

1) 영남신학교 부지에 건립된 새 성전,

2) 고 이상근 목사의 사재 헌납으로 이루어진 영남신학대학교 건축 및 원로원 설립 이야기

3) 고 이상근 목사의 친구약, 외경 주해서 29권 발행 이야기(세계 최초)

대구제일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2. 지금까지 가이드 봉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개선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가이드 봉사자가 주일을 제외하고 6일간, 오전 담당 오후 담당해서 최소 12명의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나.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탐방객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객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탐방 신청을 받고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대만, 미국, 유럽 각국 등 거의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에 기량이 있는 성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라. 교회 홍보영상물(한국어, 영어, 중국어)을 제작해서 홈페이지도 올리고 현장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탐방객들에게 간단한 차 대접 및 기념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큰 교회나 각 지역의 모 교회들은 위의 내용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홍보유인물 4개국 버전(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행정실 앞에 비치되어 있어서 탐방객의 동선과 맞지 않으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당회와 관계자분들이 참고하셔서 대구 경북의 모 교회다운 홍보 대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 물댄동산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세상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회복지부를 소개합니다.



주기성 장로
(사회복지부 부장)

사회복지부는 교회 봉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서로서 크게 토요 무료급식, 제일평화복지 지원 및 대외 구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요 무료급식 봉사를 중심으로 저희 사회복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요 무료급식은 전적으로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현재 매주 25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주 280개의 도시락(각각 밥, 반찬 3가지, 국)을 만들어 대구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만드는 과정을 세분화해 보면 매주 토요일 13:00~15:30에는 식자재 다듬기와 국(1가지), 반찬(3가지)을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만드시고, 쌀(잡쌀, 흑미 포함)은 남자봉사자 2명이 14:00~14:30분 사이에 쌀 40kg를 깨끗하게 씻어서 14:40분경 대형 솥에 담아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무거운 식자재를 옮기거나 대형 솥에다 대량의 반찬을 조리할 때에는 타지 않게 저어주는 일 등을 남자 봉사자들이 담당합니다. 식당에서는 반찬도시락 용기를 테이블에 배열 후 도시락 뚜껑에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합니다. 대략 15:30분경부터는 3가지 반찬을 도시락에 담기 시작하여, 이어서 밥과 국도 도시락 용기에 각각 담아 밥과 반찬 도시락을 1세트씩 고무 밴드를 한 후에 큰 도시락 상자에 담고 국도 별도의 용기에 담아 큰 상자에 넣습니다. 큰 상자에 담긴 도시락(밥, 반찬/국)과 수저 박스를 교회 차량에 실어 놓습니다(여름철은 날씨가 뜨거운 관계로 출발할 때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16:00경에 사회복지부 전달사항을 전하고 사회복지부 담당 목





사님이신 이필형 목사님의 식사 기도 후 봉사자들이 만든 음식으로 늦은 점심을 함께 나누며, 16:40분경에 출발 전 기도하고 대구역으로 이동하여 도시락을 나누기 전에 광장에서 제일평화회의집 원장이신 이재걸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감사기도 한 후에 17:00경에 노숙인들에게 봉사자들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봉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도시락 나눔은 대략 17:30 전후로 끝나고 마무리 기도를 한 후에 교회로 돌아옵니다. **최근에 참으로 보람을 느꼈던 것은 노숙자들이 하나같이 다른 곳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내용이 부실한데 대구제일교회에서 주는 도시락이 최고로 맛있다고들 말씀해 주셔서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느꼈고, 정성껏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부서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른 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자 노숙인들 가운데 한 분의 따님이 감사하다고 그 어머니 편에 현금을 보내와서 교회에 감사 헌금한 것도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납니다.

안타까웠을 때는 준비해 간 도시락이 부족하여 모두에게 다 드릴 수가 없을 때 죄송한 마음입니다.

계절적(더울 때, 추울 때, 비가 올 때 등)으로 인원이 유동적이어서 가급적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 현실적인 여건과 예측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방과 식당에서의 봉사자는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대구역 현장에 나갈 때 봉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역 광장 도시락 나눔 현장에서 노숙자들의 질서유지(노숙자간 다툼, 싸움, 고성방가, 욕설, 새치기, 두 번 받기 예방 등)을 위해 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젊은 남자 봉사자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매주 토요일 16:00~17:30 대구역 광장).

그리고 1년에 4번(구정, 추석, 부활절, 성탄절)은 노숙인들에게 도시락과 추가로 특식(떡, 과일, 계란, 음료)을 제공하고 있으니 뜨거운 관심과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랑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무덥고 뜨거운 날씨임에도 묵묵히 힘써 주시는 사회복지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부 파이팅!!! **물댄동산**

■ 많은 사랑 받고 떠납니다... ■



박종성 목사
(전. 초등3부 교역자)

대구제일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맨 뒷줄 의자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참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당시 참 생똥맞기도 하고, 살짝 두렵기도 하고, 혼자서 별별 생각에 하나님께 눈물은 어떤 의미인지 여쭙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잠시, 돌아보면 사역 초기엔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제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처음이다 보니 주어진 주일, 한 주, 한 달, 한 학기 행사들 그렇게 1년을 마치게 되니 어느새 선생님들의 성함과 친구들의 이름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작게나마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생일 때 편지도 써보고 일이 없어도 토요일이나 주중에 초등부실에 가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앉아서 기도도 드리고, 누워도 보고 교사실에 물건들이 어디에 무엇

이 있는지 최대한 이 공간을 제 삶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대원을 졸업 할 때 즈음 동기들이 전임사역지로 나가고 주변에 좋은 사역 자리를 제안해 주셨을 때가 왔을 때에도, 그 당시 제겐 아직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직은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때 찾아온 코로나 시기에 저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들을 발 빠르게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임원 선생님들과 여러 장소를 오가며 주일 예배를 드렸고, 친구들의 집집마다 문고리 심방을 하며 친구들의 마음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기를 돌아보며, 사역은 하나님께 구하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며 하나님은 제 삶에 대구제일교회와 초등3부를 통해 잊지 못할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결혼이며, 다른 하나는 목사 안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8월 8일에는 저희 가정에 박 하영(이름의 의미는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뜻.)이라는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

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2024년 여름, 제 삶에서 가장 무더웠던 그 여름이 제 삶에서 가장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교회를 통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역의 갯난아이가 대구제일교회에서 요람기를 거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여정을 떠납니다.

지난 8월 25일 대구제일교회 사임을 앞두고 오후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 예배를 준비해 주신 초등3부 모든 선생님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에게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시듯,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과 동산동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곳에서 아빠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저 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다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때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도 기대한다고 딸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려 합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후에 그 사랑을 갚을 날이 온다면 기꺼이 동참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첫 주일 제게 주셨던 그 눈물의 의미가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고 물려받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 문태돈 목사





토요일 아침, 대구제일교회 본당 지하 1층 아담스쿨. 베이스와 일렉 기타 그리고 드럼이 함께 어우러진 찬양 연주가 잔잔하게 귓가에 닿는다. 청년들의 합주 소리다. 전문가에게는 '똥땅똥땅'이 될 수도 있는 아직은 어설픈 리듬이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에 오늘도 열정을 다해 연습하는 청년들이다. 바로 승재스쿨의 청년들! 오늘은 '승재스쿨'의 리더 이승재 형제를 만나고 왔다.

★
★
★
청년
이승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34기 이승재입니다. 현재 청년부, 2부 예배, 금요 기도회에서 악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승재스쿨’을 승재 형제가 만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모임인가요?

처음 제가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회 악기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베이스, 통기타, 일렉 등을 연주하는 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때때로 악기가 없는 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렇다보니 교회 외부에서 악기팀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교회 내부에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찰나, 청년들중에 악기를 배우고 싶거나 밴드(각종 악기로 음악을 합주하는 단체)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소리를 맞춰가면서 사람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스쿨’ 모임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공식적인 홍보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악기를 배우길 원하는 지체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신청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삼오오 주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 정도 배우고 있으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는지라 대기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악기들을 배울 수 있나요, 모두 승재 형제 혼자서 가르치나요?

드럼, 일렉, 베이스, 통기타, 화성학, 메인 키보드, 세컨 키보드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승재스쿨 리더로 드럼과 일렉 기타를 담당하고 있고, 함께 운영하는 청년 파트너들이 있는데 통기타와 베이스는 최형규 형제, 화성학과 메인/세컨 키보드는 정현정 자매가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승재스쿨의 수업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개인 지도’가 있고, 다른 이들과 함께 연주를 맞춰볼 수 있는 ‘합주’가 있습니다. 1회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으로 주로 토/일 주말에 진행됩니다. 수업료는 고등부 찬양팀 간식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들도 부담되지 않게 아주 소정의 금액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매주 다양한 찬양곡들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신 승재스쿨을 고등부와 연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어느 날 고등부 찬양팀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찬양에 대한 마음가짐이 진지하고 순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고요. 그 친구들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 찬양의 자리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서로에 대한 삶 나눔의 장’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이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아침밥’이었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9시 30분, 찬양팀 친구들은 예배 전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더 일찍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을 굶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침밥을 챙겨 주자는 생각으로 승재스쿨과 연계하여 고등부 찬양팀 친구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승재스쿨 청년들과의 식사 교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9월부터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지속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기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수의 구분이 있을까요.

처음 1기는 초등부에서 밴드 형식의 사역 요청이 들어와 시작하게 된 것으로 큰 구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직장인들 간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2기, 3기는 합주 시간, 연령대, 좋아하는 음악 장르 등에 따라 구성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는 졸업한 상태이고, 2-3기는 동시 진행중입니다.

승재스쿨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나요?

타지역 대형 교회들을 보면 악기 자리를 물려주는 승계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외부에서 악기 팀을 데려오는 것보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은 자리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신앙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성숙해지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단순히 청년 밴드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에, 다음 세대로 이을 수 있는 건강한 승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승재스쿨의 장기적인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승재스쿨 1~3기 중 실제로 교회에서 악기로 섬기게 된 이들이 있나요? 있다면, 승재스쿨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겠네요!

네, 현재까지도 금요 기도회에서 악기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승재스쿨을 통해 모두가 다 세워지기는 어렵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어질 수 있다면 큰 기쁨입니다!





승재스쿨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는 어쿠스틱 드럼이 아닌 전자 드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던 전자 드럼들이 구형이거나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든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자세가 굳어지거나 힘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감사하게도 예배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새 악기로 교체할 수 있었고 더욱 좋은 소리와 이전보다 향상된 기능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승재스쿨을 돕는 손길들이 많았다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요. 고등부 친구들의 아침밥 챙겨주기를 도와주시는 분들, 운영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는지 늘 살펴주시는 분들,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는 품공동체 청년부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실은 작년에 승재스쿨 1기를 혼자서 진행하다보니 과부하가 와서 멤버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승재스쿨 자랑 한마디!

승재스쿨은 여타 외부 학원과는 조금 다르게 합주 팀을 꾸려 줍니다. 일반 실용음악 학원에서는 멤버들의 상황이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결성되어도 보통 3개월 이내로 해체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는 개개인의 성향, 그리고 시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수를 운영하고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원이기에 더욱 즐거이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재스쿨을 통해 찬양팀의 건강한 승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악기만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멤버들과 삶을 나누고 소통하며 신앙 안에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배운 지식, 이 안에서 느끼고 나눈 것들이 성숙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찬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악기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찬양의 자리를 역할로만 여기지 않고, 예배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승재스쿨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예동산



왼쪽부터 박지예(홍보출판부), 김원진(홍보출판부), 이승재(승재스쿨 리더)

대만 선교 20주년을 돌아보며...



손명락, 박원향 선교사
(대구제일교회 대만 파송)

어렵게만 생각했던 선교를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지 20년째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선교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언어를 배우는 문제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정부가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섯 번 공안에 잡혀서 곤욕을 치러야 했고, 그중에 한번은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국을 떠나 타이완(대만)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에서의 십 년 세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단련시켰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을 거치면서 철저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났고, 이곳에는 신앙적 자유가 있기에 현지 대학교와 교회들의 지지 속에서 如魚得水(마치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한 것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도 190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일주일 26시간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학생(학부)이 세례를 받았고, 올해 후반부에도 두 명의 학생(학부 1명, 대학원 1명)이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매 주일 모임에 20여 명이 참석하고, 예배 후에 우리 집에서 한국식 식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기와 한복 입기 등을 하면서 주일을 즐겁게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모집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니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학생들이 한국어라는 도구를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원함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곳이 도교, 불교, 토속종교로 뒤범벅되어 있기에 학생들이 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배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에 따라 오래 참음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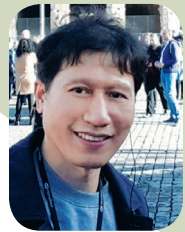
1. 봄학기를 마치고 세례를 받은 두 학생
2. 한글학교 수료식 사진(남자학생이 세례를 받음)
3. 세례받을 예정의 학생부 학생
- 4-1. 한글학교에서 한복입기체험
- 4-2. 한글학교 중 한 반
5. 예배 후 식사 교제, 말씀 나눔과 친교



특히 선교는 함께 하는 것으로 후원과 아울러 관심의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보며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물대동산

미얀마 긴급구호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금환 안수집사
(청년2부 부장)

건너와서 도우라

2024년 청년부 단기선교는 원래 방글라데시로 가고자 애썼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얀마로부터 긴급한 도움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말씀 앞에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해외선교 부원들과 패기 넘치는 청년들의 추진력 덕분에 많은 일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선교지는 세상의 끝자락에 남겨진 듯한 황량한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삶의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회 뒷골목을 따라가면 성도들의 집들이 처참한 상태로 줄지어 있었고, 천장은 뚫려 하늘이 보였으며 바닥은 벌어진 퍼즐처럼 발 디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썩어가는 대나무 기둥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 불확실

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고독한 섬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찬양을 하였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힘을 이미 깊이 느꼈고, 물질적 풍요가 아닌 신앙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후원으로 새로워진 세영교회

현지 세영교회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벽은 페인트칠이 벗겨져 얼룩져 있었고,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는 선풍기조차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선교 바자회를 통한 성도님들의 재정 후원 덕분에





에 많은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외부를 새로 도색하고, 음향 장비를 설치하여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전기 배터리를 증설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새로 교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영교회의 박희양 선교사님은 전도사로 섬기시던 중 '네 믿음대로 하라'는 주일 설교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량으로 무작정 미얀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몇 명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영어,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등을 가르치며 만남을 시작했고, 이는 조심스럽게 찬양, 율동, 성경 구절 암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세영교회(주제 성구: 빌립보서 4:20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성인 예배는 210명, 어린이 예배는 170명 이상이 모여 콩나물시루처럼 밀집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는 교회 입구 밖으로까지 사람들이 밀려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덕 집사님은 이를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행복한 문전박대는 언제든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영적 미래를 밝히다

구역을 나누어 심방을 다니며 성도들의 생활환경과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의 모습을 보았으



며, 그들의 진솔한 신앙 고백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폭넓은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영교회에는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있는 5명의 청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기도, 어린이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등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 섬기고 있으며, 신앙 교육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미얀마의 미래와 세영교회의 영적 성장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세영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단동산

※ 미얀마 단기선교 영상 보기



2024 미얀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주가 일하사시네!



이지원 청년
(청년1부)

무더웠던 올여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미얀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2019년 7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첫 해외선교였던 미얀마 선교를 통해 수동적이었던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복음의 신비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현장에서 받은 감동과 감사는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남아 신앙생활에 큰 변화와 힘이 되었고, 청년이 되어 다시 미얀마 선교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우리 교회 청년부와 해외선교부는 '긴급구호', 'RE: Builder'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교의 주된 사역은 '집 보수'였습니다. 세영교회가 위치한 미얀마 양곤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의 무너진 집들을 보수하

는 일이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간척지 위에 대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세찬 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같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교팀은 총 3일에 걸쳐 주택 8채의 벽과 바닥을 보수하였습니다. 대나무를 톱질하고, 합판을 깔고, 대나무잎을 케이블타이로 엮어 벽을 세워나가는 등, 이번 보수 사역을 통해 어디에서도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오는 비를 맞으며 일하기도 하고, 무른 대나무 바닥 탓에 부상자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감당하고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하나의 집을 다시 세워나갈 때 뿌듯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집을 보고 감사해하는 성도들을 보니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함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교회 건물 내부 벽 도색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몰라 하나의 작업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팀원 모두가 합심하여 대화와 피드백을 통해 서로 도우며 작업을 진행하니,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붓칠하며 오랜 시간 정성을 기

울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성전을 보니 다음 날 이곳에서 드릴 예배가 더욱더 기다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예배 활동팀, 만나팀 김밥 만들기 사역, 음향 장비 설치, 전기공사 (세영교회 배터리 증설,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사역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의 주된 사역이 집 보수였기 때문에 미얀마 땅을 밟기 전까지는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팀원 중에 가장 어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하니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더 돕고 일하려는 마음과 에너지, 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페인트칠할 때 더 깔끔하고 정결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얼룩진 부분을 메꾸고, 아이들이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찬양을 함께 부르고 웃으며 활동하고, 성도들 집의 무너진 벽을 세울 땐 비가 세차게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케이블 타이를 열심히 당겼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같이 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내온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히 사역에 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준비한 사역 모두 무사히 마치고 열심히 일하며 사역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동 누릴 수 있게 하심,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이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를 다시 미얀마 땅으로 이끄시고 쓸모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번엔 집 보수와 가정 심방, 그리고 다섯 명의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15만짚을 벌어들인데 월세가 5만짚이라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불교 신자인 남편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는 할머니, 질병으로 인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시던 할머니께서 손자로 인해 교회로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의 이야기까지. 이곳 사람들이 경제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말하기를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참 평안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소망 없



어 보이는 그 땅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꼈습니다. 미얀마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각자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본인들 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로 가득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5년 전엔 어른 예배에 사람이 얼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젠 교회가 꽉 차서 선교팀이 자리를 비켜줘야 할 만큼 성도들이 많아진 걸 보니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정말로 일하시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걸 몸소 느

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한 명이었던 현지 청년 사역자가 다섯 명으로 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회 때 기도 제목들 하나 하나 가지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청년 사역자들을 보면서 온전히 미얀마 사람들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훈련된 현지 사역자들, 이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를 통해 미얀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란 소망이 자라났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 모두가 “밍글라바” 하며 인사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순수하고 맑은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열악한 그 땅 위에서 눈부시도록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을 떠나야만 했을 때, 눈물이 참 많이도 났습니다. 그 눈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미얀마 땅이 되기를,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물댄동산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6.20. 제 31회 여전도회 수련회 [강사: 허원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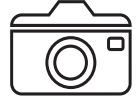
2024.06.23. 제 50회 6·25 금식기도회 신경희 목사



2024.06.30. 박창운 목사 고별설교 및 환송연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7.07. / 07.14. 오규훈 목사 주일설교



2024.07.07. 김이현(부:김상화, 모:김시은) 첫예배



2024.07.14. 미얀마단기선교팀 및 의료선교부 몽골의료선교 발대식





 2024.07. 28. 권대환 목사 학원선교 보고 및 주일오후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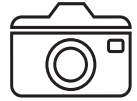
 2024.07.28. 성찬식



 2024.08.04. 장신근 목사 주일설교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8.11.
이교욱 목사(선교사) 주일설교



2024.08.25.
박종성 목사 주일오후 고별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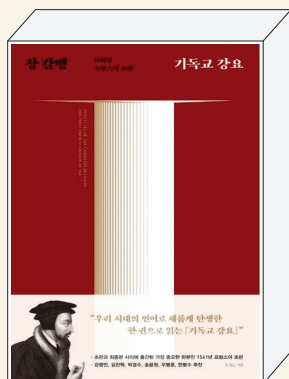


2024.09.07. 부활동산 벌초



2024.09.07. 순장 개강 세미나 [강사: 허선희 교수]





- ▶ 도서명 :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 ▶ 저 자 : 장 칼뱅 / John Calvin
(1509~1564)
- ▶ 번 역 : 김대웅 (노문학 신학자)
- ▶ 출판사 : 책 읽는 사람
- ▶ 출간일 : 2022년 1월 10일

기독교 강요

“칼뱅 신학의 뜨거운 심장이 박동하는
걸작이 마침내 오늘의 언어를 입고서 우리 곁에 왔다!”

초판과 최종판 사이에 출간된 가장 중요한 판본인 1541년 프랑스어 초판이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강요』로 재탄생하였다. 1536년 라틴어로 처음 출간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지침서나 입문서였다. “아직 복음에 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경건으로 훈련받게 될”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자 한 책이었다. 초판이 큰 성공을 거두자, 칼뱅은 기독교 신앙을 더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열정으로 1539년에 훨씬 증보된 라틴어 제2판을 출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 강요』는 주요 교리들이 주제별로 총 망라된 교리 교육서로 크게 변모하였다.

1541년 칼뱅은 라틴어를 모르는 고국(프랑스)의 평신도를 배려하여 라틴어 제2판을 프랑스어로 풀어 쓴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책은 1541년 프랑스어 초판 『기독교 강요』로, 라틴어 초판과 최종판(1559년) 사이에 출간된 여러 판본 중 가장 중요하고 널리 읽히는 책이다. 이 프랑스어 초판은 라틴어 제2판과 함께 이후 출간된 판본들의 근간이 되고, 훨씬 폭넓은 독자층을 염두에 둔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로 쓰여 있어 성경의 개념이나 중요한 신학적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칼뱅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1541년에 프랑스어 초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첫째,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싶은 독자뿐 아니라 신학의 모든 주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신학도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했다. 둘째, 간단한 교리문답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유익한 책을 저술하고자 했다. 셋째, 라틴어를 모르는 고국의 평신도들도 프랑스어로 된 이 책을 읽고 신앙의 핵심을 더 배우게 되기를 바랐다.

최종판으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1541년 프랑스어 초판을 더욱 권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첫째, 칼뱅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0대 초반 칼뱅의 생각을 이 책은 뚜렷이 보여준다. 둘째, 라틴어 전문 용어에 대해서 칼뱅이 직접 일상어로 해설해 줌으로써 일반 독자도 어려운 신학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하였다. 끝으로 최종판은 과도한 복잡성이 독자를 질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칼뱅이 주석에서 추구했던 ‘간결성’(brevitas)과 ‘용이성’(facilitas)을 여기에 제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초판이 많은 이들의 애정을 받아 온 이유는 1536년 초판의 성공적인 출발과 1559년 최종본의 장엄한 대단원과는 달리 한

실패한 개혁자가 난민 공동체에서 균형 감각을 갖춘 온유한 목회자로 거듭난 사연이 구절마다 배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띄게 넓어지고 깊어지던 칼뱅 신학의 형성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 걸작으로 오늘의 감수성 가득한 우리말로 갈아입은 것이다. 칼뱅의 글 걸을 잘 살린 번역과 탁월한 편집력 덕분에 이 책은 더욱 빛난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바울을 빼닮은 칼뱅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책이기도 하다.

| 대상 독자 |

- 장 칼뱅의 생애와 사상을 깊이 탐구하려는 이들
- 종교개혁 및 개신교의 본질과 핵심에 다가하려는 이들
-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이들
-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고 살고자 힘쓰는 모든 신자

| 책 속의 PICK |

인간의 마음에는 신성에 대한 어떤 타고난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주님은 모든 사람 속에 주님의 위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채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다. _49쪽, 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 의지는 죄의 노예로 묶여 있으므로 선을 향하여 조금도 다가갈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 움직임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첫걸음을 떼는 것인데, 성경은 그 움직임이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고 가르친다. 135쪽, 2장 인간을 아는 지식과 자유의지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지만, 죄악은 미워하신다. 우리가 고의적인 배은망덕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떠나고 싶지 않다면,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의에 도달하도록 애써야 한다. 인간은 결코 무능함을 내세워 자신을 변명하거나, 파산해 버린 채 무자처럼 하나도 갚을 수 없게 된 자기 처지를 핑계 삼을 수 없다. 192쪽, 3장 율법

우선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고 친밀해서, 믿음 이외의 어떤 것도 그분의 말씀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영원토록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287쪽, 4장 믿음 및 사도 신경 해설

회개의 시작은 죄에 대한 증오다. 이 증오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슬

픔과 비참함에 짓눌려 비틀거리면서 해산의 수고에 신음하는 가련하고 고통받는 죄인들에게 자기를 주셨음을 가장 먼저 알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시작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평생토록 매일 매일 회개를 추구해야 한다. 434쪽, 5장 회개

만약 우리가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값없이 주어진 의의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잠 20:9). “누가 ‘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고 내 죄가 씻겼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514쪽, 6장 이신칭의와 행위공로

구약은 양심을 공포로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신약은 양심에 기쁨과 즐거움을 채운다. 구약은 양심을 노예의 멍에로 단단히 속박하고 제한하지만, 신약은 양심을 구출하고 구원하여 자유롭게 한다. 구약 족장들은 율법이 속박과 불편한 양심을 통해 그들을 예속하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도와줄 복음을 기대했다. 628쪽, 7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과 상이성 - 끝 -

문단동산

그것이 알권리다

부제 : 경조부 소개



이재환 장로
(경조부 부장)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로마서 12:15)

우리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일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며 위로를 전하는 일은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경조부는 대구제일교회 교인들의 경사와 조사의 시간에 곁을 지키는 부서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룰 때, 애달픈 이별의 시간에 교인들의 곁에서 시간을 함께하며 최대한으로 섬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대화하며 제일의 성도들의 상황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고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갈 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조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제일의 가족에게 이 귀한 사역을 소개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경조부의 주요사업

1> 부활동산 및 두손모은집의 운영관리를 담당합니다.



남골묘 지역은 매년 추석 전 경조부원들과 남선교회에서 별초작업을 시행하며, 봉분형은 외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장례 일정을 상의하고 조율합니다.

성도나 성도의 가족이 별세하시면 해당교구 목사님과 장례 일정을 상의하고 모든 일정(입관, 발인, 하관예배)을 주관합니다. 타교회 주관이라면 위로예배와 조문을 합니다. 입관예배에는 해당 교구장님과 교구 임원들, 권사님들이 참여하고, 발인예배에는 조가찬양대가 찬



양으로 위로하며 장례봉사팀이 안치실에서 차량까지 운구를 담당합니다. 부활동산 안장 시에는 권사회가 도우며 은퇴 장로님께서 전 과정을 도와주십니다.

3>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할 경우 혼인예식 허가 및 지원을 합니다.



교회예식을 원할 시 예식 2개월 전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과 절차를 협의하여 당회의 허가를 얻은 후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터인 이 교회에서 많은 가정들이 귀한 시작을 이루고 온 성도가 함께 그 시작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동산 현황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한 대구제일교회 부활동산(동



명면 구덕리 산 20-1,2,3번지)은 1950년 (고)최만화 장로님의 부지 헌납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활동산은 당회와 전임 경조부장과 부원들의 많은 수고로 묘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묘역을 전반적으로 잘 정비하여 교회 공동묘지로 변화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115,500㎡(35,000평)이며 숲이 우거져 산 아래에서 보이지 않으나 산 정상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매장형에서 묘역을 정비하여 차례대로 봉분형으로 매장하였으며, 매장지역이 거의 다 소진될 쯤 국립묘지 형식의 평장으로 2009년 납골묘역 1지구

를 설치하였습니다. 납골묘역 설치 후 일정기간은 봉분형 분묘와 납골묘를 병행하여 시행하다가 후에 봉분형 분묘매장은 금지되어 확장하여 납골묘역에 순서대로 안치되고 있습니다. 납골1지구 60기는 2009년 ~ 2018년에 매장 완료되었고, 납골2지구 96기는 2018년 ~ 2022년에 매장 완료 되었으며, 그 후 납골3지구 120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납골3지구에는 95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동산 운영계획

과거에 비해 부활동산을 장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 연령 분포도를 조사한 바, 50대 이상 성도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0대 이상 300여명이 계십니다. 이에 향후 묘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로 묘지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장례문화가 바뀌는 모습에 따라 잘 조율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부활동산을 조성하여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건하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조화 화병을 없애는 등의 변화에도 믿고 지지해 주시는 제일의 가족들로 인해 힘을 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맺음. 1년에 약 60여 건 이상의 장례예식을 집행하는 교역자님들과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제일의 모든 분들을 보며 큰 은혜를 누립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빛나길 기도합니다. **부활동산**

정리 : 왕혜진 집사 (홍보출판부 취재 기자)

행복한 가정, 저출산, 국가 소멸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 결혼과 가정, 교회와 국가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과 행복, 구원과 안녕질서를 위해 만들어 주신 제도이다. 인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주신 제도인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자리잡고 있어 이 행복을 방해한다. 바로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이다.

결혼과 가정은 행복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고단한 과정이기도 하다. 땀과 눈물과 상처가 있기도 하다. 온전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보람 있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치관의 세속화와 함께 윤리가 사라지고 방종이 난무하고 개성과 자의식이 중요시되었다.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장한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서 도덕이 무너지고 결혼과 가정 제도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믿는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서로 사랑한다.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는다. 마음이 자비롭고 선하다. 가정과 배우자, 나라에도 충성한다. 마음이 온유하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을 절제한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聖化)되어 간다.

우리나라 1983년의 평균 출산율은 2명이었다. 2024년 6월 현재 출산율은 0.76명으로 OECD 국가 1.58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국가 소멸론이 기정사실화되어 간다. 결혼과 출산 기피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고용 불안정, 육아(과외, 교육)의 고비용, 가족 부양, 돈이 없어서 등의 순이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생활 여건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하였음에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방 여인 롯은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어 오벳을 낳아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복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적령기에 결혼하고 자녀 출산도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 본을 보였으면 한다. 구국(救國)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선도적으로 국가 유지와 번성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국가도 젊은 세대의 결혼과 더불어 기쁨으로 자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 소멸론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Lenard Sweet, 미국 드루 신학대, 감리교) 교수는 인구 노령화와 출산 감소에 따른 교회의 쇠퇴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교회의 변화를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목회적 교회(Ministry Church), 현상 유지적 교회(Maintenance church), 박물관 교회(Museum Church)로 분류하고 있다. 서구의 교회는 이미 박물관 교회가 될 만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교회는 목회적 교회와 현상 유지적 교회 사이에 있다고 진단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다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정체(停滯)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모든 믿는 가정에서는 자녀 출산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저출산 사회를 고출산 사회로 선도해 가야 옳다. 세상 변화에 교회가 창조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을 주도해 가야 할 때이다. 사명 중심과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한지 알게 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녀를 양육하면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결혼은 행복한 가정의 기반이고 자녀 출산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어 준다.

논단

인공지능 시대의 도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미래 담론] AI 출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1941년에 출판된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저서에서, 성서적 인간 이해의 특성을 △피조물 △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줄임- 하지만, 알파고와 챗GPT로 대중에게 존재가 각인된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제 인간 본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가장 크게 도전하고 있다.

니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 내재된 △이성 △창의력 △상상력 △초월성 등을 가리키는 고유한 특성이자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한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보편적 기초로서 이해하며, 주어진 자연환경과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와 능력의 근원으로 여겼다. 하지만, -줄임- 인간은, 노린 허즈펠드의 말처럼, 이제 '우리의 형상(In Our Image)'에 따라 인공지능(AI)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혹은 이를 수조 배 이상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줄임-

철학자들의 사고실험에 따르면, 악의적인 인공지능은 자신의 목적에 반대된다면 인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닉 보스트롬이 '종이클립 제작'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의 모든 자원을 무한하게 낭비해버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예시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처럼, 비록 악의가 없는 인공지능이라도 부여받은 목적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처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전망 중에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 같다. -줄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회사의 일론 머스크는 올 4월의 인터뷰에서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GI)이 내년이나 후년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챗GPT 회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향후 4~5년 내에 등장할 것을 예상했다. -줄임-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대중의 위기의식에 중압감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신학적으로도 AGI 혹은 초지능의 등장 가능성은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줄임-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지성, 창의성, 초월성, 상상력 등이 인간을 초월하게 된다면, 이러한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 인간을 고유한 존재로 여겨온 신학 사상이 도전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인간 존엄성의 바탕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 모두에 대하여 잠재적 도전을 하고 있다. -줄임-

우리는 도덕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 역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전반적 도덕성이 함양되어 집단이기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덕이란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고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 체현되는 만큼, 미래에 도덕적 인공지능의 등장은 덕의 공동체에서 덕스러운 인간들에게 양육 받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덕윤리적 관점은 인간 우호적인 도덕적 인공지능을 양육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아마도 그 역할은 교회가 예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덕의 공동체요 누구든지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아가페의 공동체가 되어, 그 안으로 인공지능을 수용하고 양육함으로써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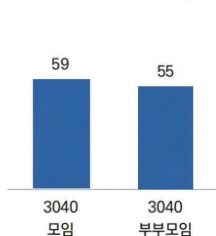
교회 이탈한 3040세대 절반 이상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기독일보는 2024년 3월 27일에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와 예장 고신 총회 교육원이 함께 조사한 '3040 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와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를 요약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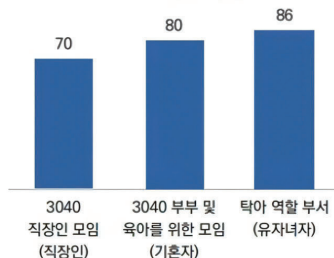
□ 3040세대는 직장·가사·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세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허리'인 30·40세대를 주목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다른 세대보다 약한 것이 현실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와 예장 고신 총회 교육원이 함께 조사해 27일 발표한 '3040 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는 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앞서 2023년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에 따르면, 30·40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30대 41%, 40대 37%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았다. '직장/사회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직장인의 68%), '가사 노동 및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기혼자의 57%)'는 답변들이 주를 이뤘다.

[그림] 교회 내 3040 관련 모임 참여 의향
(해당 모임 없는 3040 교회 출석자, '매우+약간 있다' 비율*, %)



[그림] 교회 내 3040 관련 모임 필요성
(3040 교회 출석자 중 해당 조건자, '매우+약간 필요하다' 비율*, %)



이 중 3분의 1은 스트레스가 신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에서 이탈된 30·40세대 성도 중 58%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 내 3040 관련 모임 참여 의향 및 필요성

출석교회 만족도 역시 30·40세대(만족 59%)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았다(전체 평균 66%). 출석교회 만족 이유는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32%)',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28%)' 순이었고, 불만족 이유는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함(30%)'이 가장 컸다. 주일예배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30·40세대(65%)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비활동자 3명 중 2명(67%)은 교회에서 권유를 받으면 수락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를 물은 결과 30·40세대 중 '온라인 예배로 이동' 18%, '가나안 성도로 이동' 14%로 3명 중 1명이 이탈

했음을 보였다. 이탈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회로 복귀할 의향을 물었더니 58%가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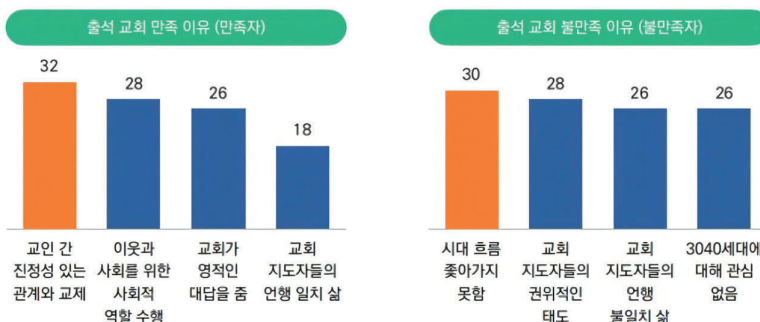
(가나안 성도 :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 출석을 중단한 기독교 신자를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것으로 유래된 신조어입니다. 편집위원 註)

□ 3040세대가 교회에서 원하는 것

그렇다면 3040세대는 교회에 무엇을 원할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해당 교회에 연령대별 모임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묻은 결과 '3040세대 모임' 혹은 '부부 모임' 참여 의향 응답률은 59%, 5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3040 직장인 모임'의 필요성에는 70%가, '3040 부부 및 육아를 위한 모임(기혼자)'은 무려 80%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유자녀자들의 대다수(86%)는 탁아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에 비해, 3040의 신앙교육(자주 가르친다. 17%)은 다른 영역인 인성교육(63%), 지성교육(39%), 진로교육(25%)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자녀 신앙교육을 못 하는 이유는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내 신앙도 확고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자료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프로그램', '부모 역할교육', '자녀와 대화법', '가정에 배 드리는 법' 등이었다.

[그림] 출석 교회 만족 vs 불만족 이유 (3040 교회 출석자, 1+2순위, 상위 4위, %)



□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3040세대에 대해 "한 때 '대한민국 최초의 신인류'로 개인화/개성화 시대를 열었고,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 영역에서 '세대 차이'를 일으켰지만, 지금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단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들 세대가 출석교회를 만족하는 이유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안했다.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32%)'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치열한 사회에서, 힘든 가정에서 지친 심신을 함께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같은 세대와 관심 영역으로 소그룹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회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여 힘겨운 일상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28%)'을 꼽은 것과 관련, "교회가 내부의 일에 매몰되어 사회적 역할을 못 할수록 공동체적 기여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적인 3040세대의 마음은 교회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 홍보출판부 편집팀 정리



저는 세그레일교회 날기 직까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지금은 머론과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 눈 뜨는 것이 정말 싫었고 차라리 눈뜨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눈 뜨는 아침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 할 뿐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비소가 된지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 마음과 열매에는 이소와 행복과 감사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행복과 마음을 표현해 보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면 정말 살맛이 납니다 !

이런 행복과 감사함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가르쳐 주고 일깨워 주고 싶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평강을 누리고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믿지 않는 걸까요 ?

저는 이곳에서 믿지 않는 수용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사랑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지상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느님께 맡기고 말로 하기보다는 몸소 행동으로 실천수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거지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가족들의 식기나 식판을 닦듯이

국내선교부 특수선교팀 앞으로는 한 달새로 수십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가운데는 신앙 간증, 신앙상담, 진로상담, 영치금을 비롯해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래 형제의 편지는 불신자에서 전도를 받고 완전히 새사람이 된 담 안 한 형제의 기쁜 편지입니다. 교도소 선교가 참으로 힘들지만, 이런 변화된 형제들도 나온다는 것을 온 교우들께 알려면서 이 편지를 물댄동산에 게재합니다.

김위규 은퇴장로 (국내선교부)

그런 즐겁고 행복한 감사한 마음으로 각인 화장실은 세 벌들이라
는 마음 자세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밤 사람들이 내미가 각인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을 것은 부유하지 않지만 제공되는 식사도
적은 정량의 밥만 먹고 나머지는 식사가 부족한 수용자에게 나눠주고
있네요. 전강이 유지되어야 흐트러지지 않는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운동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화장실에서 씻을 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
니다. 지금은 방에서 <7 명중> 전강 하고 벌들에게는 비소가 항상
번지고 있어 동료들은 항상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잡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져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지금의 이 시련과 어려움을 절대 피하지 않고 맞서서 지혜
롭게 극복하고 이겨내서 기쁨의 시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 합니다.
근면하지 않게 점심을 실천하게 진정으로 신실하게 할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대국 제일교회 김 위규 장로님 성도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사진-고등부



절기



정청자 집사

불타는 대륙의 열기도 입추로 마침표를 찍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날로 사계절은 있었으니
스스로 있는 자의 공식을 대대로 생각하셨으리라

기후도 우퍽지퍽 시샘을 부리면
조금씩 변함이 생기고 한여름 밤의 자연 소리
반딧불의 길잡이도 사라지고 가는 여름 아쉬워
매미 소리 처량하게 그칠 줄 모르네

아~~ 가을인가 봐

자연의 섭리에 세 번째 계절 우리 곁에 사부작사부작 찾아오고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 바람결에 한들 산들 춤바람 일으키며
코스모스 꽃잎 따라 내 마음도 들썩들썩 춤을 추지요

환상 속에 잠시 황홀했었네
하늘은 높고 맑고 공활한데 새털구름 한 조각 노을빛에 물들어
아름다움이 일색이었네

삼라만상이 울긋불긋 아름다움으로 퍼져 나가며
오곡백과 풍성하게 익어가는
평화로운 들녘 오가는 행인들은 힐링이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며

틈 없이 둥글게 돌아가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많으며
세상에 내가 존재 할 수 있게 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한 시절 영원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절기에 맞게 피고 짓고 열매 맺고 마지막 잎새 한 장~~~

인생무상을 느끼며 남은 인생
단풍님 노을님들 모두 해피터치
스스로 있는 자의 섭리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 물댄동산

순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 상 신앙 소그룹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구제일교회 등록 성도

모집기간 연중 계속

문 의

장규현 목사(010-9472-7770)
정송희 권사(010-3507-8768)

No	순장 성함	순 이름	모임 날짜	행정구분	No	순장 성함	순 이름	모임 날짜	행정구분
1	박성순 권사	생명나무	목요일 오전 10:30	운영1팀(김정숙권사)	28	김은주 권사	새샘순	주일 1부 예배 후	운영4팀(안현옥권사)
2	이경희 권사	만나순	주일 2부 예배 후	운영1팀(김정숙권사)	29	조영란 집사	시심순	주일 2부 예배 후	운영4팀(안현옥권사)
3	이숙자 권사	석청순	토요일 오후 2:00	운영1팀(김정숙권사)	30	김영남 집사	주육맘순	금요일 오전 10:00	운영5팀(3040)
4	정명자 권사	봄날순	수요 오전 예배 후	운영1팀(김정숙권사)	31	곽경주 집사	미모순1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5팀(3040)
5	이영숙 권사	자라나순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1팀(김정숙권사)	32	배유진 집사	미모순2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5팀(3040)
6	이옥자 권사	주바라기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1팀(김정숙권사)	33	김진술 성도	미모순3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5팀(3040)
7	민성혜 집사	아남케	수요 오전 예배 후	운영1팀(김정숙권사)	34	최윤정 집사	커밍순2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5팀(3040)
8	권혜경 권사	연한가지	월요일 오전 10:00	운영2팀(정송희권사)	35	이경희 집사	주품아1	금요일 오전 10:00	운영5팀(3040)
9	이미경B 집사	다운순	화요일 낮 12:30	운영2팀(정송희권사)	36	안지현 집사	파자마	비정기적	운영5팀(3040)
10	김경화 권사	디딤돌	화요일 오후 1:00	운영2팀(정송희권사)	37	서혜진 권사	시온뷰티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5팀(3040)
11	이태숙 사모	영성순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2팀(정송희권사)	38	한미숙 집사	주품아2	토요일 오전 11:00	운영5팀(3040)
12	조인지 집사	섬세랑순	주일 2부 예배 후	운영2팀(정송희권사)	39	류평강 성도	콩콩말말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5팀(3040)
13	장희숙 권사	순수순	목요일 저녁 7:00	운영2팀(정송희권사)	40	박문호 집사	아빠달은	주일 저녁(온라인)	남성 및 부부
14	홍순남 권사	푸른초장	금요일 오전 11:00	운영2팀(정송희권사)	41	진시홍 집사	예순님	주일 3부 예배 후	남성 및 부부
15	김정아 집사	오순도순	금요일 오전 10:00	운영3팀(노선희권사)	42	김옥동 집사	엔게디	주일 3부 예배 후,	남성 및 부부
16	박병애 권사	포도순	수요일 저녁 6:00	운영3팀(노선희권사)	43	김위규 장로	부부순	비정기적	남성 및 부부
17	이미영 집사	아그순	화요일 저녁 6:00	운영3팀(노선희권사)	44	박창식 집사	아가페	주일 오후 예배 후	남성 및 부부
18	김민정B 집사	고운순	화요일 오전 11:30	운영3팀(노선희권사)	45	이주원 집사	햇불순	주일 3부 예배 후	남성 및 부부
19	최은미 권사	하말순	금요일 오전 10:00	운영3팀(노선희권사)	46	이주하 장로	썬될순	주일 3부 예배 후	남성 및 부부
20	김영숙B 집사	아사순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3팀(노선희권사)	47	이승환 장로	두리하나	주일 3부 예배 후	남성 및 부부
21	최선화 권사	예달순	수요 오전 예배 후	운영3팀(노선희권사)	47	정영섭 장로			양육팀(양홍철 장로)
22	서현주 권사	은혜순	화요일 저녁 6:30	운영3팀(노선희권사)	48	박세영 집사			양육팀(양홍철 장로)
23	서유정 집사	그때순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3팀(노선희권사)	50	오선자 사모			양육팀(양홍철 장로)
24	도현정 권사	초록순	목요일 저녁 8:00	운영4팀(안현옥권사)	51	정송희 권사			양육팀(양홍철 장로)
25	염경숙 집사	그리세	수요 오전 예배 후	운영4팀(안현옥권사)	52	노선희 권사			양육팀(양홍철 장로)
26	최은현 권사	힐순	월요일 오전 11:00	운영4팀(안현옥권사)	53	양홍철 장로			양육팀(양홍철 장로)
27	이미화 집사	부부순	주일 3부 예배 후	운영4팀(안현옥권사)					

2024년 문화교실 4분기

수강신청 안내

수업기간

10월 ~ 12월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

오카리나(김연자)

주일 11시

본당 지하1층 블루엔홀

드럼(최영민)

주일 11시

기념관 4층 정류아트홀

바이올린(윤미돌)

주일 11시

본당 지하2층 102호, 206호

플루트(유규혜)

주일 10시 30분

본당 지하2층 103호

기타(김대영)

주일 12시30분

본당 5층 문화교실 사무실

목공(이경훈)

목 19~22시

본당 지하2층 207호

영어회화1(Joseph)

토 10시

본당 지하2층 201호

영어회화2(Katebe)

토 10시

본당 지하2층 202호

영어회화3(Nivwa)

주일 1시

본당 지하2층 207호

영어회화4학생(Katebe)

토 11시

본당 지하2층 202호

영어회화5학생(Joseph)

주일 12시40분

본당 지하2층 202호

베이직 컷 헤어 교실(권정순)

주일 12시50분

본당 지하2층 102호

동화로 배우는 기초영어(조정숙)

주일 11시30분

본당 지하2층 201호

요한복음 영어로 배우기(이은정)

주일 1시

본당 지하2층 201호

문의

문화교실부 담당
010-3117-7457

신청방법1



신청방법2

문자로 신청
010-3117-7457
수강료 송금
농협 716-12-340703

신규 신청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바랍니다.

대구제일교회 교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실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친교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부상조 相扶相助 & 유유상종 類類相從



애니앤티크

찾잔과 그릇, 아드로, 웨지우드커피잔, 로얄알버트, 빈티지소품

조안나 집사 / 대표

010-4737-3512

smartstore.naver.com/any_antique

성도님께 드리는 무료배송 이벤트



★찍어주세요★



색동상회 색동주단

주단, 포목, 혼수예단, 도매, 한복대여 전문

강영미 집사 / 대표

010-3525-1359

053-253-3859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1지구 1층 남1동 37호



★찍어주세요★



본 지면의 광고는 소상공업과 자영업자를 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많은 참여 주세요 ^^ - 홍보출판부 -



쥬디자인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스티커, 로고

안주현 집사 / 대표
010-2228-6088
blog.naver.com/desabafo
토, 일요일 휴무



★찍어주세요★



윤드림 가죽공방

성경커버, 월데이클래스, 워크샵, 직업체험

배윤정 성도 / 대표
010-5453-4163
대구 중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2
일요일 휴무



★찍어주세요★



상부상조 相扶相助 & 유유상종 類類相從



고도아트갤러리

사시사철 도심속의 정원, 청라언덕에 있는 갤러리

양은지 성도 / 관장

010-8226-6161

instagram.com/godo_art_gallery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05길 38

필름통1층



★찍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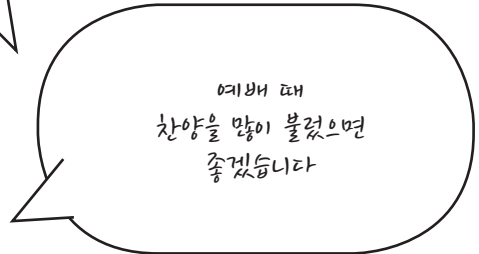
본 지면의 광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획된 무료광고입니다. 많은 참여 주세요 ^^

- 홍보출판부 -

예배당에
1. 책을 얻을 수 있도록
2. 가방 걸이
3. 방석 교체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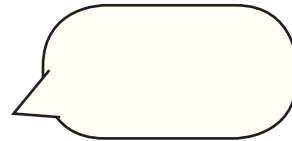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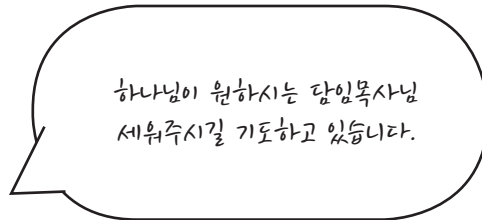
우리 대구제일교회 부목사님들
아주 설교를 잘 하시고
모든 행사일도 문제 없으십니다.

1~2년이 걸리더라도
관용과 교회 교인을 사랑하는 목회자,
력망과 거룩함이 있는
목회자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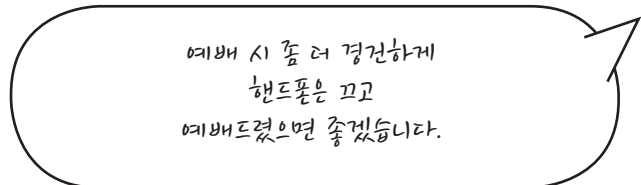


- ※ 홈페이지 관련 건의 사항
: 영상통신부에 전달했습니다
- ※ 주차시설 관련 건의 사항
: 관리부 · 주차봉사부에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임목사님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 좀 더 경건하게
핸드폰은 끄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로비와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열린소리함에 의견과 칭찬, 격려, 사랑의 말 등 넣어주세요.
주신 많은 의견들은 수렴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 의논 하며
일부 물댄동산에 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116편 12절

지도목사 이필행
부 장 강영우
부 부 장 박문호
총 무 이상원
회 계 김미진
서 기 박현아

편집위원
취재기자
스튜디오
편집
발행

곽지예, 김원진,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왕혜진, 이금환, 이수경, 전용철
우제오, 박효윤
안지현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화 (053) 253-2615 ~ 7
팩스 (053) 253-2618
주소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행일 2024. 09. 29.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메일 fch_pub@naver.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 (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역장회	(화) 오전 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3층)
초 등 1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6층)
초 등 2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 (7층)
초 등 3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 (4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 년 1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2 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 년 3 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 (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 (FM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8 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4년 11월 23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표어 |

주여, *God Cures, We Care!*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